광주일보 Weekend

1 제17753호 2판
2007년 5월 12일 토요일

여성 MC들 男 못지않네

현영

이영자

정선희

이영자·정선희 등 즐거운 입담 인기

프리랜서 강수정은 '울상'

시청률조사 기관인 TNS 미디어 코리아가 밝힌 '주간시청률 20'(4월30일~5월6일)에 따르면 예능 부문 수위를 다투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한도전'(8위·18.7%), '황금어장-무릎팍 도사'(16위·15.1%), '상상플러스'(19위·14%)다.

이 세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유재석·박명수·탁재훈·강호동·신정환·이휘재 등 모두 '남성'. 이들뿐 아니라 '일요일일요일밤에' 등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만, '헤이헤이헤이2'의 신동엽, '미녀들의 수다'의 남희석 등 TV를 장악하고 있는 남성 진행자들의 이름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 보니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유명 MC의 겹치기 출연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6%에 달하는 등 '끼리 끼리' 움직이는 남성 MC들에 식상해 하는 시청자들도 늘고 있다.

반면 공중파에서 여성 MC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케이블 TV에서는 최화정·김원희·이영자가 진행하는 MBC 드라마 넷의 '삼색녀 토크', 정선희가 진행하는 MTV의 '서니 사이드 업' 등 여성들만 진행하는 프로도 있지만 공중파 예능프로에서 남성 진행자와 대등하게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여성 MC는 '놀러와' '헤이헤이헤이2'의 김원희 정도가 눈에 띈다.

하지만 최근 여성 진행자들의 약진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은 6년만에 공중파 오락프로 MC로 컴백하는 이영자.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릎팍 도사' '상상플러스' 등에 출연한 그녀의 '입담'은 그녀의 '내공'이 녹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003년 SBS의 교양프로 '해결 돈이 보인다'와 MBC 드라마 '진짜진짜 좋아해'에 출연했던 이영자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봄 개편부터 MBC에서 2개의 고정 프로를 맡아 예능 MC로 본격 컴백한다. 박수홍과 호흡을 맞추는 '이영자·박수홍의 지피지기'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대 방영되며 토요일 오후 5시30분에는 '쇼! 서바이벌'의 진행도 맡는다.

'비호감 연예인'의 대표격이었던 현영의 약진도 돋보인다. '여걸식스' 등을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한 현영은 MBC '생방송 섹션 TV 연예통신'에 이어 SBS 신설프로그램인 '작렬!정신통일'에서 김용만과 투톱으로 진행을 맡아 신정환, 지상렬 등 쟁쟁한 연예인들을 리드하고 있다.

'연예계 최고의 입담'으로 불리는 정선희는 '말'로는 '예능 MC 빅4'로 불리는 신동엽·유재석·김용만 강호동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해피 선데이'의 한 코너인 '여걸식스'의 터줏대감이었던 그녀는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찾아라! 맛있는 TV'를 비롯, 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서도 능숙한 진행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초창기 여성들만을 MC로 내세워 화제를 모았었던 '여걸식스' 후속 프로그램인 '하이 파이브'는 역시 조혜련·현영·박경림·김민선·채연 등 여성MC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형식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반면 '추락하는 별'도 있다. 프리랜서로 전향해 '맛대맛'과 '야심만만'을 진행하고 있는 강수정이 주인공. '야심만만' 시청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강수정이 재치와 순발력이 요구되는 오락프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망치고 있다(시청률이 8%대까지 떨어졌다)며 'MC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히트'의 검사 역 하정우 '훈남'으로 떴다

MBC 드라마 '히트'에서 김재윤 검사 역을 맡고 있는 하정우(29)가 '훈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군대의 부조리를 그린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일약 스크린의 기대주가 됐던 그는 '프라하의 연인'에 전도연의 경호원 겸 운전사로 출연하며 시선을 끈 후 김기덕 감독의 '시간'과 '숨', 뮤지컬 영화 '구미호 가족' 등에 잇따라 출연했다.

현재는 한미합작영화 '두 번째 사랑'에서 할리우드 스타 베라 파미가와 호흡을 맞춰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반응이 그렇게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요."

'히트'의 하정우가 인기를 끌면서 소수의 관심사였던 '용서받지 못한 자'나 '시간' 같은 그의 전작들이 케이블·위성 채널을 통해 인기리에 편성되고 있다.

"요즘 가장 기분 좋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제 전작들을 찾아서 본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프라하의 연인'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 그에게는 드라마 섭외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김기덕 감독과 손을 잡는 것으로 예상 외의 선택을 했다.

"드라마 '히트'에서는 제가 아니라 캐릭터가 훈남이죠. 인물이 매력적으로 그려지니까 저도 덩달아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아요. 고현정 선배님을 상대로 연기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살의 나이 차가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현정이 누나는 상대 연기자를 편하게 배려해주세요."

하정우의 꿈은 영화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특히 배우 뿐 아니라 제작, 연출, 투자까지 전반적인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다.

10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스파이더맨3	46만 200	255만 9천900
2	아들	4만7천600	25만 6천600
3	극락도 살인사건	4만1천200	200만 400
4	리핑:10개의 재앙	2만 8천 57만	57만7천500
5	더블타겟	2만6천	35만 4천
6	날아라 허동구	2만 5천500	32만 9천200
7	닌자거북이 TMNT	1만8천600	16만4천900
8	동갑내기 과외하기	5천	52만8천
9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1천 900	1만9천600
10	천년학	1천900	13만8천100

〈자료제공:필름 2.0〉

T 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하늘만큼 땅만큼	KBS1	28.9
2	행복한 여자	KBS2	25.7
3	대조영	KBS1	24.5
4	내 남자의 여자	SBS	21.6
5	고맙습니다	MBC	19.3
6	나쁜여자 착한여자	MBC	18.9
7	긴급출동 SOS24	SBS	18.9
8	무한도전	MBC	18.7
9	개그콘서트	KBS2	18.1
10	연개소문	SBS	17.6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미녀는 괴로워	코미디
2	박물관이 살아있다	어드벤처
3	마파도2	코미디
4	한니발	스릴러
5	바람피기 좋은 날	드라마
6	조폭마누라 3	액션
7	DOA	액션
8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코미디
9	타짜	드라마
10	데자뷰	미스터리

〈자료제공:씨네타운〉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아리랑	SG워너비
2	가슴아 그만해	엠씨더맥스
3	하늘 위로	렉시
4	흔들어봐	길건
5	이럴 거면	아이비
6	완소 그대	서영은
7	다행이다	이적
8	통증	거미
9	시간을 지울 수 있다면	조성훈
10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랑	리사&이승철

〈자료제공:벅스뮤직〉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팩스 222-8005〉
광고국 2200-521 〈팩스 227-9500〉
디자인 2200-536
사업2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2-0195〉
판매부 2200-551 〈팩스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